



# 자전거 거치대 번호판 차량 번호판과 똑같이 범죄 표적 우려

자전거 등을 뒷부분에 매달아 차량 번호판을 가릴 경우 부칙이 의무화된 '외부장치용 자동차 번호판(흰색 점선 사진)'이 절도범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전거·캠핑 등 레저를 즐기려는 시민이 늘면서 외부장치용 번호판 교부도 급증하는데, 차량 번호판과 외부장치용 번호판이 번호는 물론 규격도 동일해 분실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전거 동호회를 중심으로는 번호판을 가리고서 운행하는 차량을 단속하는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안심하고 외부장치용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광주시 서구 등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부칙이 의무화된 외부장치용 자동차 번호판의 교부 건수는 이날 현재 383건으로 파악됐다.

자치구 별로는 동구 19건 서구 64건, 남구 67건, 북구 100건, 광산 133건으로, 이중 80%가 올 들어 교부되는 등 레저 인구가 늘면서 번호판 교부도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3월 개정·시행된 자동차관

## 레저인구 늘면서 발급 급증 곳곳 분실되거나 버려져 방치 대포차 악용 가능성 색상 구별 등 대책 마련 필요

리법(제10조)은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질 경우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30만원)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차량 앞·뒤에 부착된 번호판과 추가로 교부되는 외부장치용 번호판이 번호는 물론 색상, 규격이 똑같은 점이다.

외부장치용 번호판의 경우 번호판 탈부착이 상대적으로 쉬워 절도범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일단 분실하더라도 자전거 거치대 등을 차량에서 떼면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해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실제 번호판과 동일한데다 상대적으로 운전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외부장치용 번호판이 이른바 대포차 운전자에게 흘러들어가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차량에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서구청에는 외부장치용 번호판 분실신고가 접수되는가 하면 지난 6월에는 무안지역 해수욕장 도로변에 외부장치용 번호판이 버려진 채 방치돼 있는 것이 자전거 동호회 회원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해)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 문세훈(47) 사무국장은 "우리 동호회(단체)의 경우 광주지역 회원만 1700명인데, 상당수 회원이 외부장치용 자동차 번호판이 분실돼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면서 "외부장치용 번호판의 색을 차량 번호판과 확실히 다르게 하든지, 자전거 마크를 눈에 띄게 새기든지, 즉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당국도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1만 원이면 달 수 있는 외부 장치용 번호판을 왜 시민들이 달지 않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도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 올 들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접수됐다"면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수색 서둘러 달라” 돌고래호의 실종자 가족들이 10일 오후 제주항 7부두에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사고 초기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종자들의 수색을 서둘러달라고 해경에 요구하고 있다. 이평형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등 해경 관계자들이 실종자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추자대교 아래서 돌고래호 실종자 추정 시신 발견

### 사망 11명으로...가족들 제주로 옮겨 해남 임시거처 폐쇄

돌고래호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사고발생 7일 후인 10일 오후 제주 추자대교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날 오후 4시28분께 상추자도와 하추자도를 잇는 추자대교 아래서 수색활동을 하던 해경 1007함 고속 단정이 남서 시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낮 12시47분께 추자 우두도 서방 0.8km 해상에서 10번째 사망자 시신이 발견된 이후 나온 것이다.

해경은 이날 수습한 시신을 제주 한라병원으로 옮겨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 시신이 돌고래호 전복 사고 실종

자로 밝혀지면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어나고, 추정 실종자는 7명으로 줄어든다.

해남군에 머물던 돌고래호 전복사고 실종자 가족들도 6일 만에 거처를 제주로 옮겼다. 유가족들은 각지의 연구지에 서 장례를 지낸 뒤 제주에서 합류하기로 했다.

실종자 가족 26명은 10일 오전 10시 그동안 머물렀던 해남군 다목적생활체육관 임시 거처를 떠나 오후 1시50분께 제주항 7부두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동 중 간사고해역에서 수색 상황을 지켜봤다.

해경의 경비합정으로 제주에 도착한

실종자 가족들은 해경이 준비한 미니버스에 탑승하지 않고 부두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신속한 수색과 사고 수습을 요구했다.

최영택 돌고래호 실종·사망자 가족대책위원장은 “이번 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남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제주로 거처를 옮겼다”며 “실종자 8명 전원을 찾을 때까지 해경의 수색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돌고래호 사망자 시신 10구가 모두 유가족 연구지로 이송되고, 실종자 가족들이 떠남에 따라 해남군은 사실상 임시 거처를 폐쇄했다. 사고수습대책본부도 조만간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교정청 의료인력 전국서 가장 열악

### 의사 1인당 수용자 489명

### 재소자 폭행 등 대처 미흡

지난달 19일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서남대 설립자 이흥하씨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갈비뼈와 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앞서 2013년 8월30일 순천교도소에서 재소자 A씨가 동료 재소자 B씨에게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맞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새벽 숨졌다.

2012년에는 전주교도소에서 간경화를 앓고 있던 C씨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최근 5년간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사망자가 128명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의무관(의사) 결원율은 13.7%에 달했다. 특히 광주지방교정청의 의료인력은 전국서 가장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내 사망자는 128명으로 이 중 100명이 질병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의무관은 정원보다 13.7%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교정청 소속 목포교도소와 군산교도소는 의무관의 정원이 2명이지만 1명씩 밖에 없었고, 올해 수형자를 받기 시작한 정읍교도소는 아예 의료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9개 교정시설의 평균 의사 정원은 1.67명이었다. 반면 서울지방교정청은 광주보다 1명이 더 많은

시달당 2.64명이었고, 대구와 대전지방교정청은 각각 1.83명이었다.

의사 1인당 수용자는 광주가 정원 대비 489.3명, 서울 474.3명, 대구 451.5명, 대전 385.9명이다. 광주와 대전은 의사 1명이 맡은 수용자 수에서 100명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한 의료인력 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의료인력 1인당 수용자 수는 서울 254.3명, 광주 244.7명, 대구 236.5명, 대전 177.3명이다.

서기호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광주지방교정청의 의료인력은 정원 자체가 다 교정정보 다 적게 배치된데다 결원까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조합장 당선자 30명 재판받는다

### 2명은 1심서 당선무효형

굴비와 사과, 돈을 조합원에게 주고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조합장 30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11일 처리된 첫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210명을 입건해 이 중 10명을 구속하는 등 116명을 기소하고 94명을 불기소했다. 기소된 116명 중 30명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순천지원 1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청별 입건자 수는 광주와 인근 시·군 6곳을 맡은 광주지검이 66명(기소 34명), 목포지청 29명(기소 20명), 장흥지청 14명(기소 9명), 순천지청 49명(기소

38명), 해남지청 52명(기소 15명) 등이었다. 특히 광주지검의 경우 전국 지검 평균 입건인원 22명보다 3배나 높았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14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34명(16.2%), 불법 현수막 부착 등 불법선전이 3명(1.4%), 선거운동기간 위반 등 기타 59명(28.1%)이었다.

김희준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입건자의 80% 이상이 농·어촌에서 발생한 점으로 미뤄 조합원들의 진밀성과 폐쇄성을 악용한 불법선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집유 30대 절도 발각될까 방화

○~남시용품 판매점에서 저지른 절도 행각이 발각될까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38)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50분께 광산구 하남 2지구에 있는 A(48)씨의 남시용품 판매점 출입문에 인화성 물질 2ℓ를 뿌리고 불을 내 수역원의 재산 피해를 건물 3, 4층에 사는 입주민을 위협에 빠뜨린 혐의.

○~김씨는 건물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추측해 나선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김씨는 “최근 남시에게 주인이 휴대용 랜턴을 훔친 사실을 알고 신고하겠다고 하자, 집행유예기간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매장 내 CCTV 등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렀다”며 때늦은 후회. /김형호기자 khh@

**송원대학교 평생교육원 2015 통합 의학 강좌**

**교육 목표** 통합의학(현대의학, 한의학, 보완대체 의학)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통합치료(치유)능력 향상 개발

**교육 대상** 양의사, 한의사, 심리상담 치유사 물리치료사, 보완대체의학 종사자

**교육 과정** 3대 의학이론 이해와 치료(치유)실기 통합의학의 필요성과 상관관계 공부

**수강 기간** 2015년 9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19:30~21:20) 15주

**모집 기간** 2015. 8. 24(월) ~ 9. 19(토)

**수강료** 300 만원

**접수처** 문의 : (062)360-5760 010-8477-0620 송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진**

**강길진** 서울대학교 졸업, 산부인과 전문(박사) 前 충남대 교수 한국정신과학회 정회원

**안상원** 대전대학교 졸업 (한의학 박사) 前 대전대학교 한의학 교수 現 청담인 한의원 원장

**정명희** 원광대학교 졸업 보건학 박사, 예술치료 전공 現 원광대학교 외래교수

**원은주**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대구한의대학교 졸업 약사, 한의학 박사 매일 경제 TV 건강한의사 출연중 現 미다스럼 한의원 원장

**2015 학습스트레스관리사 양성 강좌**

**교육 목표** 학습스트레스를 효율적, 전문적으로 관리해 원하는 시험을 적시에 합격하도록 돕는 공부스트레스 관리사 양성

**교육 대상**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학부모, 대학생, 각 분야 교육자

**교육 과정** 대표적 학습스트레스인 집중력저하, 자신감결여, 불안감의 과학적 관리법, 영역별 합격의 효용을 학습법 교육

**수강 기간** 2015년 9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19:30~21:20) 15주

**모집 기간** 2015. 8. 24(월) ~ 9. 19(토)

**수강료** 20 만원

**접수처** 문의 : (062)360-5760 010-8477-0620 송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진**

**김병준** 행정고시 18회, 법학박사 前 지방경찰청장 前 조천대 교수, 前 연세대 외래교수 2014 학습스트레스관리법 저자 現 ㈜생활명상 아카데미 CEO

**신종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변호사 前 5군단 법무장관 現 차세대콘텐츠산업학회 現 중앙대학교 초빙교수

**이용권**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공학박사 회사 설립, 투자상담 컨설턴트